

진안군수 자택 ·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항로 군수 "10일 자진 출석할 것" '홍삼세트 살포' 이 군수 측근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전주지검이 6일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항로 진안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 군수는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0일 한 제보자가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 명에게 돌렸다"며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는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군수는 오는 10일 자진 출석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10일 검

찰에 들어오기로 약속했다. 구속영장 청구도 고심 중"이라면서 "공소시효(12월 13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군수의 측근이 구속됐다.

검찰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를 구속했다.

이날 전주지법 고승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 군수가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는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와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의 선고받았다. /강석훈 기자

임실군 소속 공무원 2명 뇌물수수 혐의... 경찰 조사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실군 소속 A팀장과 B주무관은 건설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팀장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해외연수 비용과 언론사 광고비 명목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는 지난 2월부터 임실지역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설업체는 업무상 피해가 두려워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의 체감온도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차가운 겨울 날씨를 보인 6일 완산구 남부시장에서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며 추위를 녹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역 아이들 차별 초래”

이남숙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이용 대상자 취약계층 위주 한정, 모든 아동으로 확대를” 전주 “현재 80% 우선보호아동, 나머지 정원 20% 초과 안하는 범위서 일반아동 이용 규정”

저소득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지역의 아동들에게 또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숙 전주시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전주시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 67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 대상이 부 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이 있는 아동 또는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다문화·새터민 가정 등 흔히 취약계층이라 분류하는 아동들이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취약계층 아동으로 낙인되고 이는 아동들에게 또 다른 차별과 상실감으로 상처가 되고 있다”며, “이용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 조례가 정부의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정됐지만 이용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이용대상을 전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우선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구)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했다”며, “현재 80%는 우선보호아동으로 나머지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아동이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이어서, “일반아동 비율의 점진적 확대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상실감 및 이용제한 등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일반아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에 19명 아동 기준으로 월 418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중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인건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가 포함되어 있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경로당의 경우 월 277만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아동센터는 월 2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송효철 기자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예방을 위한 집중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요 증상은 38°C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는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고, 그 외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해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온에 낮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예방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 초기단계인 만큼 스프린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노약자,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빠른 시일 내 백신접종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도로명이야기’ 담은 달력 제작·배부한다

전주시, 연말 맞아 6000부 제작 지역 요식업체·주민센터 등에 배부

전주시가 주요 도로명주소의 이야기 담긴 달력을 제작·배부해 시민들의 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누구나 1년 내내 재미있는 도로명 이야기나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유래 등을 표기한 2019년도 도로명주소 달력 6000부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제작한 도로명주소 달력은 전주지역 요식업체와 노인정·취약계층·자연 마을과 35개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다.

이번에 제작된 달력은 전주 주요 도로 20곳에 대해 스토리텔링기법을 이용, 전주시의 주요 행사와 일정 등을 기재해 시민 누구나 1년 내내 재미있는 도로명 이야기나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앞서, 시는 시민들이 주요 도로의 위치를 인지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해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도로명주소의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도로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알아 갈 수 있게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주소 활용을 증가 할 수 있는 각종 퀴즈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START

전북 메세나 사업 전통예술학교 '도래학당' 내일 개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공장장 문정훈, 노조의장 박종화)와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 프로젝트(전북 메세나 사업)를 8일 처음 선보인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기금 3천만 원의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전통예술학교 '도래학당' 행사는 연말을 맞이해 도내 거주 아동 11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과 15일 총 2회에 걸쳐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의 예술가를 직접 만나고 함께 무대에 서는 특별한 경험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선도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상, 함유의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동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전통비보이, 전통타악(난타), 전통공예놀이체합, 전통탈춤 등 총 4개 분야 10여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소규모 커뮤니티 형식의 아티스트워크숍과 아티스트-아동 플라보 공연을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메세나 사업은 전북의 문화예술 전문가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경영전략을 지닌 현대자동차가 만나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재단 이병천 대표이사는 “지역을 위해 큰 예산을 지원한 만큼 재단에서는 지원 취지를 살려 예술의 창의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기업-지역의 협력으로 예술 나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 제설 추진

전주시가 올 겨울철 제설대책으로 안전 도로를 만들기 위해,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근무체계에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적설량이나 주의보 등에 따라 단계별 제설작업을 하고 강설시 주요간선도로 70개 노선 315km, 교차로 및 이면도로 217개소 등에 제설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도로제설대책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적설량에 따라 1~5단계별 제설작업을 추진기로 했다.

특히, 적설량이 7cm 이상일 경우에는 시정 전 직원을 새벽 제설담당구역에 긴급 투입해 제설작업을 하게 된다.

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현재 134대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도 2,220톤을 확보하고, 고갯길과 저지 지역에는 사전에 제설용 모래주머니를 배치한 상태다.

나아가, 갑작스런 폭설이 내릴 경우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시 외곽 지역 마을진입로 등의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곽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거쳐 트랙터를 활용한 시민제설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중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겨울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도로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집과 점포 앞 눈을 스스로 치우거나 강설시 자동 월동장비(체인)를 확보해 강설시 자동차에 장착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 한옥마을서 한달 산다

시,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전 세계에 전주를 소개하는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한옥마을에서 한달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국인 전주 홍보대사들은 한 달 간 전주한옥마을에서 생활하고, SNS 등을 통해 전주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리게 된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 8~16명을 선정해 총 8회에 걸쳐 오는 12월 21까지 1차로 전북대와 세종학당재단의 외국인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전주 홍보대사는 기존 작가 지원공간으로 활용되던 한옥마을 창작 예술공간(완산구 어진길 31)에서 한 달 씩 거주하며 공공요금과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송효철 기자

전문 컨설팅으로 '온두레공동체' 역량 강화

시, 21일까지 기술지원·교육

전주시가 전주형 온두레공동체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에 나섰다.

시는 전주 곳곳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개별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지원, 교육 등을 펼친다.

이번 공동체 컨설팅은 시가 앞서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60여개 온두레공동체 활동현장을 직접 찾아 다니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공동체들이 원하는 맞춤형 강의 기술을 전수하고, 공동체 활동 완료 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먼저 양세훈 한국정책분석원장이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0개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로 모색을 위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오는 10일에는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이 온두레공동체 중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